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올해 들어 탈북민 15.6% 늘어

중산층 이상 탈북민 급증하고 있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탈북민)은 815명(잠정치)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했다고 2일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첫 증가세다. 2009년 2914명까지 늘었던 탈북민의 수는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지난해 1276명으로 감소세였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에 있을 때 생활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었다는 답변의 비율이 몇 년 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며 “최근에는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입국한 북한 해외파견 인력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엘리트층인 ‘외화벌이 일꾼’들은 대북제재 이후 본국 상납금 부담이 커지자 탈북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도 최근 탈북 추세와 관련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탈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며 “물론 아직도 탈북

민의 50%는 경제적 어려움을 탈북의 이유로 꼽고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20%까지 상승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말에는 북한의 수학영재가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했다가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고, 북한 장성급 인사와 외교관 4명이 탈북해 해외 망명을 대기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와 같은 탈북민 증가세를 고려할 때 국내 거주 탈북민의 수는 올해 10월 혹은 11월께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GNPNEWS]

내가 네 허물을 뺏뺏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이사야 44:22)

기도 | 하나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 북한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탈북민들과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공: WMM

- 마다가스카르 시골 마을에서

주일 예배 시간.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같은 젊은 여인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다. 나란히 앉은 백발의 할머니도 양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한다. 어린아이에서 젊은 여인으로, 젊은 여인에서 다시 얼굴과 손등에 주름 잡힌 백발의 노인으로. 점점 노쇠해지는 우리의 걸사람을 한 자리에서 보는 듯하다.

육체를 입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새 생명이 된 우리의 삶에선 주님께 드러지는 우리 몸의 수고가 더 할수록, 낡아지고 닳아질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걸사람의 낡아짐을 힘겨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대하라! 날마다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육신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날마다 무능해져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게 될 것을. [GNPNEWS]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니하노니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린도후서 4:16)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7)

지옥에 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길을 걸을 때 물웅덩이가 나오면 피하고 차가 달려오면 안전한 곳길로 급히 피하시죠? 그렇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안전을 원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십니다.

물웅덩이냐 달려오는 차는 눈에 보이지만 지옥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재는 아닙니다. 공기, 마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큰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요? 우주 공간의 그 크기를 인간이 다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과학이 증명한 것만 실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정말 보잘 것 없고, 우리의 유한한 지식이 다 증명해 내지 못할 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기 원하십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당신



과 나의 죽음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날에서야 “아! 지옥이 있구나!”라고 하기에 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하신 속도로 지금 지옥이 당신을 향해 달려

오고 있습니다. 지옥을 피하는 길은 당신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GNPNEWS]

INSIDE

- 02 뉴스 | 아시아 서파푸아 기독교인들 ‘슬로모션 종족 학살’ 당해
- 03 기획 | 이란 이란 교회, 50년 동안 핍박에도 부흥으로 열매 맺어
- 05 인터뷰 | 이형우·정현정 “진정한 선교사, 주의 종으로 준비시켜주세요”



-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단심(丹心)의 사람
- 08 뷰즈인 복스 |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나는 믿음이 있을까 않을까’ ... 믿음의 삶 체험 보고서

아시아

서파푸아 기독교인들 '슬로모션 종족 학살' 당해

인도네시아 당국이 군부대와 경찰 동원 원주민 인권침해

인도네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서파푸아주 기독교인과 반정부 활동가들이 인도네시아 무슬림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타, 고문, 납치, 살해를 당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뉴스레터는 최근 브리즈번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 인도네시아 무슬림 군인과 경찰들이 한때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던 이곳에서 '슬로모션 종족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슬로모션 종족 학살이란 원주민 다수가 기독교인이었던 이 지역에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이슬람 지역으로 바꾸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말한다.

70년대까지 이 지역 인구의 96%를 차지하던 파푸아종족은 인도네시아인들의 계속된 이주로 2010년에 49%로 떨어졌으며, 2020년대에는 29%로 줄어들 전망이다.

뉴스레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지역의 땅을 약 50개의 다국적 기업에게 개발하도록 내줘, 이 지역 원주민 권리를 침해하고 착취



▶ 서파푸아주 원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출처: ppiwellington).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지역 토착 원주민들이 자결권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왔으며, 파푸아인들이 자유를 위한 실질적 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면 군사력을 동원해 대응해왔다.

이 지역 원주민들의 인권침해에는 인도네시아 특전사를 비롯 육군과 대(對)계릴라전 특별부대인 88부대와 정보부 BIN등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파푸아지역은 1949년 인도네시아가 독립할 때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남아 있다가 1969년 국민

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합병됐다. 하지만 지역 원주민들은 당시 투표가 자카르타 정부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합병을 거부하고 독립을 주장해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한 젊은 원주민 사업가가 살해된 배후에 지역정부가 개입했으며, 한 파푸아 여성활동가는 독립을 위한 기도예배를 드려 구속됐다. 또 27명의 파푸아 판오일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특수부대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 [GNPNEWS]

아메리카

미국 동성애자 정치인, 친동성애 법안 잇따 발의

미국 사회가 친동성애자 정치인이 발의하고 제안하는 각종 친동성애 관련 법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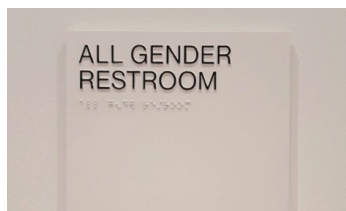
리카도 라라(민주)라는 의원은 모든 대학교나 기독교학교에서 친동성애 및 친성전환 교육을 의무화하고 강요하는 법안(SB1146)을 제안, 미국 교육계를 혼란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기독교학교들은 친동성애, 친성전환자 정책을 받아들여야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독교학교들이 남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과 기숙사 사용을 성별(sex)에 따라 제한하지 않고 자신이 인식하

는 성(gender)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즉,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은 다른 여학생과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토니 옛킨스(민주)와 수잔 에그먼(민주) 의원은 학생과 각급 학교가 태어난 성별(sex)이 아니라 느끼는 성별(gender)을 존중하고 그외 수십가지 성별에 동의해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AB1888)을 제출했다. 학교가 이 같은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이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



▶ LA 공공기관에 설치된 성별 구분없이 사용되는 화장실

은 대부분 동성애자이거나 친동성애자입니다. 리카도 라라 의원은 성장 과정에서 게이로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같은 일련의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토니 옛킨스 의원 역시 동성 배우자가 있는 동성애자로 새크라멘토 주 의회에서 최초의 동성애 하원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GNPNEWS]

알림

“복음기도신문, 이렇게 활용해주세요”

2010년에 창간된 복음기도신문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보발꾼에게 배송됩니다. 본지는 요청하시는 분에게 2부에서 수백 부까지 배송하고 있습니다. 최소 배송 단위가 2부인 것은 한 부는 구독자

가 읽고, 나머지 한 부는 전도나 믿음의 교제에 활용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많은 보발꾼들이 본지를 노방전도에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과 전도를 통해 회심과 결실의 열매를 거뒀다는 간증도 많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이 경험하신 간증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 본지에 게재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 070-7417-0408 gnpnews@gnmedia.org [GNPNEWS]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일본 장애인시설서 최악 흥기 살해사건...19명 사망 26명 부상

일본 가나자와(神奈川)현 사가미하라(相模原)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20대 남자가 침입해 수용자들에게 흥기를 휘둘러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을 당한 2차대전 종전 이후 일본에서 최악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교도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님, 무고한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무서운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회개함을 허락하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파키스탄 '명예살인' 예외없이 처벌한다

파키스탄의 자히드 하미드 법무장관이 이슬람 문화권의 대표적 악습으로 지목되는 '명예살인'의 가해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26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악습을 막을 수 있는 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속히 이 거짓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배고픈 북한군 탈영 잇따라

북한 당국이 군인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인민군 보위총국을 군부대에 파견했지만, 생활고에 지친 군인들의 탈영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29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7월 한 달 동안 군인 탈영사건만 3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최근 눈에 띄게 많아진 탈북현상을 보며 북한의 영혼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그들을 도우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파괴하라”... ISIS, '종교 전쟁' 부채질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최근 온라인으로 유포한 선전 잡지 다비크 15호 표지에 ISIS 조직원이 교회 꼭대기에 설치된 십자가를 때내는 사진과 함께 '십자가를 파괴하라(Break the Cross)'는 제목을 실었다고 허핑턴포스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나님도, 진리도 알지 못하여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눈이 가리워져 감각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올림픽을 목전에 둔 브라질 북동부 나홀로 폭동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브라질의 치안에 경찰 최대 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북동부 20여 개 도시 70여 곳에서 폭동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치안이 불안한 브라질을 붙들여 주소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브라질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선포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8월 3주~8월 4주

- 8월 3주(8.15~8.20) (강은선) 061-271-9981
- ▶경기 광주 / 동산의샘교회 (김시환) 031-765-3927
-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 010-7439-7020
- ▶서울 마포 / 열방그루터기교회 (유국주) 010-5443-5481
- 8.25~8.26(07시부터 24시간)
- ▶전북 전주 / 전주시향교회 (정**) 010-8295-6889
- 8.15~8.16(09시~21시)
- ▶경기 용인 / 수지선한목자교회 (연현주) 031-265-0191
- 8.27(10시~15시)
- ▶브라질 마까파 / 복음기도교회
- 8.18~8.19(06시~18시)
- ▶전북 전주 / 전주사론교회 (진**) 010-2638-1440
- 기도참여 문의
-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 8월 4주(8.22~8.27)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기획

이란 교회, 50년 동안 핍박에도 부흥으로 열매 맺어

“이란 사람들은 10명이 전도 받으면 9명이 성경책을 원하거나 기독교를 더 알고 싶어한다.”

한국순교자의소리의 초청으로 내한한 이란 순교자의 자녀 조셉 호세피안 선교사는 최근 이란에 복음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난 8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아버지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가 순교한 94년 무렵 2000명 정도였던 성도 수가 현재 2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며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기가 이란 땅을 뒤덮고 있다고 조셉 선교사는 말했다. 올초 오픈도어선교회가 밝힌 이란 기독교인은 45만 명에 이른다.

그는 이같은 이란의 복음화는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라며 “이란의 부흥은 지난 50년 동안 일어났으며 핍박은 더 큰 교회 성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도 5명이 순교했고,



▶ 이란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위성 수신기를 설치한 이란 주택의 풍경(왼쪽), 조셉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독교 위성TV 방송을 시청하며 예배 드리는 이란 성도들.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지난 37년간 50여 건의 순교 및 투옥 사건이 일어났으며, 300여 명이 가까운 기독교인이 고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셉 선교사에 따르면, 이같은 이란 복음화 열기는 위성TV와 현지인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도자들의 수고 때문이다.

현재 이란에서 수신 가능한 위성 방송은 31개 채널. 이 중 세 개 채널에서 기독교에 관한 설교 및 전도의 내용이 이란 국민에게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다. 또 그중 한 개의 기독교채널이 조셉 선교사가 설립한 호세피안선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 위성방송은 파시어와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란인과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란인

디아스포라 및 중동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채널의 고정 시청자는 수백만 명이며, 이중 인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은 20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조셉은 밝혔다.

또 노방전도가 불법이지만 이란 어디든지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책, DVD를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전도하는 사역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이란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한편, 조셉 선교사는 “교회 성장은 항상 핍박 받는 현장에서 나타난다.”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핍박받는 교회들과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GNPNEWS]

순교자의 자녀 조셉 호세피안 선교사 인터뷰

“아버지 살해한 정부를 용서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다음은 이날 조셉 호세피안 선교사(사진)의 간증과 인터뷰 내용 요약이다.

조셉 호세피안의 아버지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는 1994년 행방불명된 지 12일 만에 처참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온몸에는 고문 흔적이 있었고, 신체 곳곳이 칼에 찔려 피투성이였다. 게다가 가슴은 심하게 훼손된 참혹한 상태였다. 칼로 공격받을 때 손으로 막았는지 아버지 손은 상처투성이였다. 당시 19세의 나이로 병역제에 따라 군 복무 중이었던 조셉 호세피안은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한 순간 영원히 웃지 못할 것 같았다.

순교하시기 전부터 하이크 목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란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1945년 생인 아버지 하이크 목사는 1980년 이란 최초의 하나님의성회 교회 목회자가 됐다. 당시 이란은 한해 전인 1979년 이란 샤 왕조의 마지막 왕인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아야톨라 호메이니에 의해 이슬람 혁명이 단행돼, 모든 선교사는 추방당하고 교회는 하나둘씩 사라질 때였다.

정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믿어온 이들 외에 무슬림들을 대상

으로 한 전도를 막았다. 그러나 하이크 목사는 “투옥과 죽음에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끈기있게 사역을 계속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밖에서 돌이 날아와 창문이 깨지는 일은 다반사였으며, 그럼에도 가정은 작은 천국이였다.”며 설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이크 목사는 아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다.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던 아버지

하이크 목사의 믿음은 결국 그의 생명을 죽음과 맞바꾸게 했다. 하이크 목사가 실종되기 3일 전, 그는 감옥에 갇혀있던 이란인 무슬림 개종자이자 목사인 메흐디 디

바지(Mehdi Dibaj)의 구명운동을 전개했다. 1980년대 초 개종한 디바지는 9년간 투옥되어 있으면서 신앙 포기를 강요받았다. 그리고 1993년 개종을 이유로 비밀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이크 목사는 이런 사실을 전세계 언론에 알렸다. 그의 활동으로 디바지 사면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이란 정부는 1994년 1월 디바지를 석방했다. 그러나 3일 후 하이크 목사는 납치돼, 살해됐다. 석방됐던 디바지도 하이크 목사가 순교한 지 5달만인 그해 6월, 납치된 후 살해됐다.

아버지 하이크 목사의 죽음으로 조셉은 한동안 어두운 시간을 보

내야 했다. 아버지가 살해당한 순간에도 군에서 병역의무를 담당해야 했고, 제대하고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보아야 했던 그는 큰 상실감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용서할 수 있는 강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가족들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셨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강함을 주셔서, 용서하는 발걸음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며 “용서의 열쇠는 순종”이라고 강조했다. 가족이 함께 용서를 위해 기도한 날, 입으로만 하던 기도가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기도로 바뀌었다. “용서가 화해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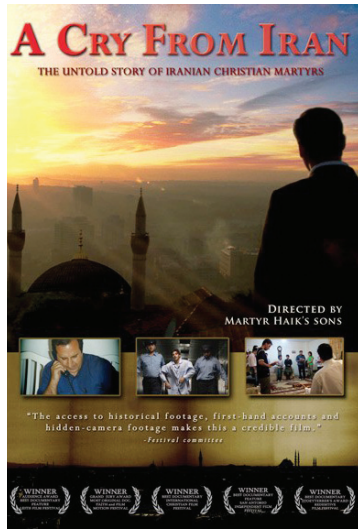
니며, 용서가 원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다.”며 “몇 달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사준 캠코더로 이란 지하교회 활동과 아버지의 사역을 영상으로 담았다. 그러던 그는 17세부터 이란 복음주의교회 미디어부에서 활동했다. 아버지가 순교한 지 2년 뒤인 1996년 그는 영국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길드포드 예술대학에서 영화영상학을 전공하고, 1999년 독립영화, 광고, 뮤직비디오를 제작, 감독했다. 2000년에 다시 미국으로 이민해 캘리포니아에서 기독교 방송과 기업용 영상 제작을 하는 JFA프로덕션을 설립했다. 당시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위성TV인 ‘SAT-7 PARS’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 이후 호세피안선교회를 설립해 미디어와 전도여행, 인권 지지 등을 통해 이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순교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한 ‘이란의 외침(A Cry from Iran)’, 이란의 박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클로저(Closure)’를 미국과 이란 등에 보급했다. 또 미국의 교회, 학교를 비롯해 전 세계 150곳 이상의 교회를 방문해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해 간증하고 기도지원을 촉구해왔다. [GNPNEWS]



▶ 고(故)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의 예배 모습(왼쪽). 아들 조셉 호세피안 선교사가 아버지의 순교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이란의 외침(A cry from Iran).



기획 | 베트남 선교 열전(17.끝) - 베트남 전쟁 전후시기 선교 이야기

산지족 수십만 명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대추수를 경험하다

이 연재는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베트남에 입국한 찰리, 에그룡 선교사 부부가 전쟁의 참화 가운데에서 복음의 통로가 된 과정과 베트남 주민들의 상황을 담고 있다. 대하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베트남의 현대 선교사(史)를 이들의 회고록 '베트남에 사랑을 담아'(To vietnam with Love)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1973년, 세 번째 사역 기간이 끝나고 있었다. 그즈음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수술을 앞두고 계셨다.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지 몰랐다. 두 분 곁에 있고 싶었지만 안식년을 가지면 성경과 찬송가 번역이 지연될 것이다. 우리는 번역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했다.

사이공 함락 전의 부흥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던 다락스쿨이 방학하자 나는 두 아들과 함께 베트남에 돌아와 성경 번역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다. 주 중에는 화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반적인 일들로 땀 흘렸고 주일에는 다섯 곳에서 설교했다. 빨레이꾸 교회는 성장하여 1972년 상반기에만 600명의 성도가 새롭게 등록했다. 여전히 주일 오후에는 마을로 전

도단을 보냈고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둘째 주는 빨레이꾸 근처의 크리스찬 마을 모든 교회에 들어가 설교했다. 셋째 주는 빨레이꾸 나병 치료소에 있는 200여 명의 크리스찬 난민들을 위해 설교하고 성찬을 함께 했다. 넷째 주는 짜오 레오에 가서 설교했는데,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앞뒷문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1년 동안 1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 그때가 추수기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다섯째 주는 나짱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사이공 기지에서 성경번역 정리 작업을 했다. 인쇄일이 다가오는데 인쇄용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주님은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재정을 주셨다. 이런 기적으로 안식년 귀국 이주일 전에 모든 번역과 검증 작업이 끝나고 홍공에 있는 연합성서공회에서 인쇄하는 일만 남게 되었다.

1974년 5월, 귀국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오이와우 할아버지였다. 14년 동안 복음을 거부하던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우리가 귀국하는 날 아침 예수 그리스도

를 영접했다. 그 일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트남을 떠났다. 1958년 입국한 후 15년 만이었다.

베트남 그 이후

1975년 2월 16일, 자라이 신약 성경이 빨레이꾸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헌정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산 지대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떨어지기 전에 속히 성도들의 손에 들려졌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항복하고 베트남은 공산주의의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선교사들은 모든 자라이 지역에서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수만의 베트남 사람들과 부족민들이 탈출했고, 다른 사람들도 보트 피플로 뒤를 따랐다.

나는 미국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산 속의 부족들과 소식이 두절된 채 10년이 지났다. 1985년, 200명의 소수부족이 캄보디아 태국 국경을 넘어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월맹이 고산지대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투옥과 구타, 폭압적인 대우를 피해 정글로 도망쳤다. 그곳에 모인 다섯 부족(고호, 몽, 라다이, 자라이, 바나르)이 '데가(DEGA)' 정글 국가를 이뤘다. 몽타냐르족으로도 불리는 데가족



▶ 베트남 소수민족인 몽타냐르족이 종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정부 단속에 의해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박해를 피해 캄보디아로 도피한 모습(출처: ucanews 캡처).

은 인도차이나반도의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30여 개의 종족에 이르는 산지족으로 1060년대에 100만 명, 현재는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데가족 가운데 1971년의 부흥이 계속되어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겼다. 정글을 탈출한 200명의 'DEGA' 난민들은 필리핀의 미국 난민 캠프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부는 우리에게 그들의 미국 정착을 위한 영어와 문화 훈련을 요청했다. 10년 이 넘는 동안 베트남에서 준비한 성경책과 찬송으로 난민캠프에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은혜였다. 이후에도 조금씩 자라이 사

람들이 탈출해 왔다. 그들은 자라이 족 마을의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다. 1975년 7000명에서 1985년에는 1만3000명으로 늘어났고 곧 2만7000명에 이르렀다. 당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언어장애인들이 치유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기적이 너무 놀라웠기에 그들의 설교는 매우 강력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만3000명이 교회로 돌아왔다. 1972년에 5만3000명이었던 크리스찬이 1992년에는 24만8000명이 되었고, 그중 6만2000명은 자라이족 신자들이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끝> [GNPNEWS]



선교 통신

“현지어로 우렁찬 설교도 못하지만, 사랑하며 그날까지 달려간다”

선교현장은 다양한 장면이 펼쳐진다. 긴박한 첩보전 같은 장면이, 때로는 한 쪽의 수채화 같은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L국에서 사역하는 K선교사는 최근 현지의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누리신 아름다운 시간을 기도편지에 담아 보냈다.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

7월 중순 A지역 교회예배에 참석한 후, 나는 부족하더라도 현지어로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다음 주에 정말 그런 기회가 왔다.

7월 31일 주일, 동네의 한 교회에 가게 됐다. 그날따라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다양한 사정으로 많이 불참했다. 돌리보니 나를 포함해 선생님은 두 명뿐이었다. 예배 순서 중 틀림없이 한 순서를 맡게 될 것 같았다. 그런 상황이 되자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릴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잠깐 밀려왔다.

어느 순서를 시키려나 긴장하고 있는데 곧 예배인도자가 “헌금 후

K선생님께서 기도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멍칫거리려야 의미가 없었다. 헌금 후 나는 앞으로 나가 헌금 주머니 세 개를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현지어로 기도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려운 중에 헌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살면서 부족하지 않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다. 얼굴과 등에 땀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오후 2시 예배는 21km 떨어진 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드린다고 했다. 1시부터 기다려 2시 30분 무렵 시작돼 예배를 드렸다. 2부 시간으로 성경퀴즈도 진행됐다. 마치고 10여 명의 성도에게는 큰 상자를, 또 다른 10여 명에게는 작은 비누 하나씩 상품이 지급됐다. 숫자가 딱 맞는 것 같다. 예배를 마치고 국수를 배부르게 먹었다.

다음날인 8월 1일 월요일, 교회

에서 22km 떨어진 한 성도의 집에 심방을 갔다. 도착하자 젊은 ‘팜(가명)’ 목사가 우리를 맞아 주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팜 목사는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하며 이사야 말씀으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한 할아버지는 대충 듣는 것 같았는데도 팜 목사의 초청에 응해 영접기도를 했다. 또 설교자 앞에 앉은 젊은 부부 중 아내는 말끝마다 아멘, 아멘하며 불신처럼 보이는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해주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는 예배가 마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트럭 타고 짙은 어둠을 가르며 찬양하는 중년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 우리 지체하지 않고 다시 차에 올랐다. 전 날 몸이 아파서 연합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한 사역자의 집으로 향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눴다. 갑자기 한사람이 “K선생님이 이해 못하니



▶ 현지교회의 예배 모습.

통역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웬만큼 다 알아들었다고 말하며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현지어로 이야기 했다. 그들은 모두 좋아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자 상황을 듣고 함께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다.

깜깜한 어둠을 헤치고 돌아오는 길에 트럭 뒤 뒷자리에 주저앉은 50~60대 아저씨, 아줌마들의 찬양이 시작되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50대 후반의 운전사와 70대 할아버지와 나는 함께 웃었다. “나이 먹어도 유치원 학생들이야. 나이 먹으

면 어려워지는거요.”

7시 정도면 거의 인적이 끊어지는 그곳에서 트럭은 늦은 시간까지 골목 골목을 다니며 성도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뭔가 소박한 기쁨을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어 받기만 하는 삶이다. 긴 세월이 흘렀으나 해 놓은 것이 없는 나를 볼 때도 있고, 어느 언어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렁찬 설교도 못하지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렇게 사명을 마치기까지 달려가길 원한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선교사, 주의 종으로 준비시켜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이형우·정현정 예비선교사 부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지난 5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금방 선교지로 나갈 것이라는 부부 희망은 모두 사라졌다. 하나님은 이들을 선교지 대신 기도의 골방, 그들이 명명한 워룸(War Room)으로 부르셨다. 주님은 그곳에서 선교사가 아니라 복음과 기도가 삶이 된 사람들로 그들을 빚어가셨다. 복음과 기도의 전령사로 대기발령 중인 이형우, 정현정 예비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나요?

정현정(이하 정): “특별하게 한순간에 결정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믿음의 삶을 한걸음씩 걸으면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 삶은 선교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나이 서른여섯에 아는 사람을 통해 처음 교회에 가게 됐죠. 그것도 계속 귀찮게 굴어서 화집에 나간 거였는데 그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었어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생겼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저에게 실체가 되고 나니 제가 가지고 있던 전부가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기도와 선교훈련을 쉬지 않고 받으면서 배설물과 같은 모든 것을 실제로 다 내려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배설물 같은 것들을 내려놓다

-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셨나요?

정: “저는 예전에 코디네이터였어요. 2년 동안 방송국에 있다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이 아주 잘돼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죄짓는 것 외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죠. 실력을 키우고 사업을 번창시키고 저축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누가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복음을 만난 지금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모든 삶이 다 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가치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모두 정리했죠. 남편도 선교사로 부르시고 회사생활을 정리하는 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네요?

이형우(이하 이):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매우 안정되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전 이미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부흥회 때 목사님이 리빙스턴의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리빙스턴이 헌금 시간에 자신을 드린다면 헌금 바구니 위에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심에 응답하려는데 모두가 말렸어요. 사실 명예퇴직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그때 퇴사하면 많은 손해를 각오해야 했어요. 그러나 부르심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재정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예상치 않게 명예퇴직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회사가 정리되면서 N국으로 나갈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 어떻게 N국에 대한 마음을 받으시고 준비하게 되었나요?

이: “제가 중보기도학교에 섬김이로 참여하고 있을 때 N국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어느날 섬김이 모임에서 자신이 선교지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N국이 마음에 품어졌고 그 마음을 선교사님께 나눴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죠.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확신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내도 N국에 대한 마음을 받았는데 저와 다른 곳, 다른 시기였던 것이죠.”

정: “물론 저도 N국에 대한 마음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어느 나

부와 명예를 누리다 복음 만나

헌신 후 맞게 된 생명의 고비
“하지만 그 시간은 주님과
깊은 사귀는 시간이었어요”

선교지로 출발, 계속 지연돼

절망중에 더욱 말씀 붙들며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 기대돼요”

라든지 상관없었어요. 이미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나라가 제 마음에 들어와 있었고 선교완성은 오직 기도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N국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 속히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부르신 주님의 뜻 깨닫다

- N국으로 언제쯤 가실 예정인가요?

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도 선교사로 부르시고 나라에 대한 마음도 주셔서 곧 나갈 줄 알았죠. 그러나 저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에서 먼저 6개월 공동체훈련의 간사로 섬길 것을 제안하셨죠. 때마침 N국 정탐여행을 다녀오면서 더욱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수많은 어려움이 휘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여서, 그 제안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완전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상 못한 상황으로 저를 인도하시며 마음에 소원했던 대로 제 삶의 모든 결론이 오직 진리가 되게 하셨어요.”

-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정: “훈련소에 입소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때였는데 하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근처의 병원을 찾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죠. ‘포

상기대’ 판정을 받았어요. 몸 안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인데 매우 위험한 상태였어요. 이 일을 통해 주님은 남편과 저에게 각각 필요한 부분을 다뤄주셨어요. 먼저는 남편의 마음상태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 이 부분은 이 집사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세요.

이: “아내가 큰 병원에 가기 전에 ‘만약 내가 암이라면 우리 가족이 모두 훈련원에서 나와야겠지?’ 라고 물었어요. 근데 ‘내가 나가면 모두 좋아할거야.’란 제 대답에 아내가 매우 당황했어요. 사실 전 그때 매우 혼란 속에 있었어요. 진리가 저에게 실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된 척 물어갈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왜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 왜 이것을 위해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하는지 저에게 실체가 되기까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 때문에 절망스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기다려주시고 제가 승리하기까지 걸음마다 말씀으로 확증해주셨어요. 적어도 지금 전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에 사로잡혀 있고 그 일을 위해 매일 워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 정 집사님에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정: “사실 훈련사역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전 N국에서 이 상황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사명자는 사명을 마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한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경험되는 시간이었어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주님과 깊은 사귀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무너져 있었는데, 주님은 병원에서 홀로 주님 앞에서 있는 시간을 통해 회복해주셨

죠.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했어요.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밤낮없이 한자복이 젖도록 기도했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무척 행복했어요. 퇴원하기 일주일 전쯤 기도하는데 시므온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보는데 제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 시대의 시므온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감동을 주셨는데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도 더욱 경건의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퇴원 후 다시 돌아가 훈련학교 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 주님께서 두 분을 같은 마음으로 준비시킨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워룸이 뭔가요?

이: “영어로 ‘전쟁하는 방’이란 뜻인데요. 저희는 그곳에서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워룸을 만든 것은 저희가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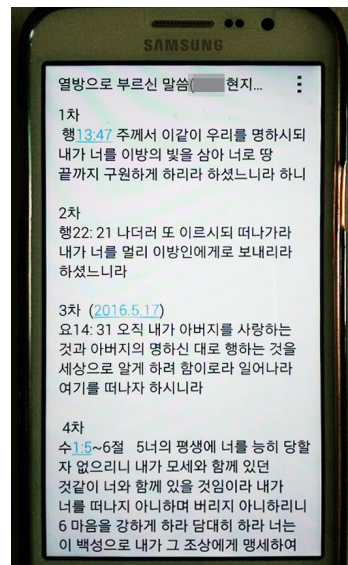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기도로

- 살고 싶었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정: “저희가 훈련소에 들어갈 때 이미 집과 재산을 모두 정리한 상태였어요. 6개월 훈련이 끝나면 바로 선교지로 나갈 생각이었죠. 그래서 선교지로 나갈 준비 기간 동안 잠시 어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며칠만 있겠다고 한 게 벌써 5개월이 넘어가네요. 파송선교단체에서 현장으로 가기 전 조금 더 진리로 견고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현장선교사님들이 교회개척을 원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나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외에 다른 훈련도 제안하셨죠. 처음엔 더 이상 훈련은 필요한 것 같지 않아 거절하다 결국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드디어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N국에서 초청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교지로 나가는 일이 계속 연기되고 집에서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어요.”

-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워룸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만 주셨죠.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을 여기 핸드폰의 메모공간에 모두 기록해 놓았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의 빛을 발하라(6)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단심(丹心)의 사람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며 그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선 맥을 못 춘다. 고작 '균형' 타령이다. 십자가 복음이 놀랍기는 하지만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식이다. 이렇게 밥그릇 하나가 두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운명에 맞설 용기가 없다. 밥을 굶어본 적도 없으면서 노예근성을 가지고 지레 겁부터 먹는다.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고민만 잔뜩 하다가 이상한 괴물 같은 모습을 한 채 털썩 주저앉는다.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은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채 휩쓸려 다니다보면 역사의 톱니바퀴에 끼어들게 마련이다. 역사의 톱니바퀴에 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죽을 목숨, 죽을 각오를 하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며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가겠는가.

고작 12척의 배로, 그것도 잔뜩



겉에 질린 군사들을 이끌고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와 맞서 싸워야 했던 이순신 장군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으로 부하들을 독려했다. "사즉생 생즉사(死則生 生則死)".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

는다. 탈영하다 붙잡힌 부하의 목을 치고, 진영을 불태웠다.

종노릇인가 승리 편인가?

죽음이 우리를 협박할 때, 운명에 굴복한 채 역사의 톱니바퀴에 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음을 각

오하고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다니엘이 그 길을 갔다. 다니엘은 멋진 실력 쌓아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뜻을 확고히 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에 계속 종노릇하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죽음을 삼켜버리는 승리를 택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뜻을 정하여 진리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종으로 살 것인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영원히 살기 위해 자유인으로 죽음을 맞이하라. 하루를 살다 죽어도 이제는 육에서 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순간에서 영원을 선택하라.

이 암담하고 도전적인 어둠 앞에서 주님의 소명(召命)을 받은 자들이여 뜻을 정하라!

수만 가지 이유, 핑계, 합리화와 불순종으로 죽은 조상들의 비참한 종말과 망한 조국의 역사를 청소년기에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했던 다니엘. 원수들에게 목 베임을 당하고, 유린당하며 울부짖던 동족들의 절규를 어찌 잊을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성전이 무너지던 기가 막힌 고통을 어떻게 지울 수 있었을까.

"하루를 살다 죽어도 다시는 이런 미친 짓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화려하고 강한 유혹이 와도 뜻을 정하여 이젠 다시 저 미친 길 가지 않겠노라. 하루를 살다 죽어도 거룩한 이 길 가겠노라. 내겐 다른 선택이 없노라." 주님은 이런 단심(丹心)으로 자신의 뜻을 정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2014.8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다림줄 (13) | 유신진화론 vs 창조론 (9)

하나님은 자연법칙 안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최근 진화론을 수용하며 그 관점에서 성경 해석을 시도하는 유신진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유신진화론적 시각에서 집필된 우종학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이하 무크파, IVP刊)에 대해 창조과학 전문가인 이재만 교수(창조과학선교회)가 반론을 제기했다. 본지는 이재만 교수의 글을 요약, 연재한다. <편집자>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은 '창조'

하나님의 능력을 진화와 자연법칙의 틀에 제한시키려는 '무크파'의 저자 태도는 참 우려스럽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진화과정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 저자가 갇혀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섬과 별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는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 세계에 부여하셨던 자연법칙을 따라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 섬과 별과 생명을 비롯한 다양한 창조 세계의 구성물을 창조하고 계신다."(p.244), "신의 창조 방법을 기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과

연 옳은 일인가?"(p.243)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의 창조 행위이다. 저자는 창조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으며 자연법칙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저자는 창조가 자연과정을 넘어서는 설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설계 개념 안에 신을 가두어 놓는 '우물 안 개구리'(p.200)의 자세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진화라는 자연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저자의 생각과 자연을 초월한 분의 설계로 창조를 설명하려는 것 중에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제한시키는 생각이란 말인가?

자연법칙 또한 창조의 일부

성경은 말씀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 2:2) 창조 행위는 옛날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창조에 관한 모든 일을 그 기간에 마치셨다. 다시 말해,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 '마쳤고', '그치셨다'(창 2:1-3). 하나님의 창조 기적으로 천지와 만물과 그것들을 운행

하게 하시는 자연법칙들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 법칙들에 의해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고 계신 것이다. 이와 반대 과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완벽한 설계 없이 과연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창조가 기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의견은 성경과 현실세계를 다 왜곡시킬 뿐이다.

"행성들이 공전하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태양계는 분명 신의 설계였을 테지만, 그 설계가 실제로 구현된 것은 태양이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잇따라 만들어진 긴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다."(p.243)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자연법칙 안에 제한시키고 있는 저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또한 일관성이 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꿰어 맞추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신을 설계의 개념 안에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 놓고, 아름다운 태양계는 분명 신의 설계였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설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 체계를 긴 시간 동안 형성되었다는 진화론적 개념에 끼워 맞추고 싶은 것이다. [GNPNEWS]

<5면에 이어>

Interview

"제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N국 학교에 지원서를 냈지만 초청장도 오지 않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주님이 현장으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한가하게 일자리를 구해서 생활비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레위기 말씀으로 저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지 기대가 돼요."

-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주의 종으로 세워가시는 것 같네요.

정: "네. 정말 워룸에서 모든 것을 제하시고 오직 주님만 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부를 쏟는 것 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여력도 없구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교회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다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까?'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앞드

죠. 그러면 히브리서 8장 10, 11절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부여주세요. '그래, 너희가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이 내릴 거야.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어.' 그러면 더 기도하게 돼요. 주님의 교회인 저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도록요."

-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이: "계획을 물어보니 제 존재가 바뀌었다는 게 확실해지네요. 계획 없이 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이상 나는 없고 오직 그분만이 제 안에 사시는 것을 원하죠. 제 기도제목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예요. 전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 "저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길 소원해요. 주님 사랑에 미쳐서 이 길을 달려가고 싶어요.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도, 제 삶의 모든 이유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혼인 잔치에 모든 열방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소망해요." [GNPNEWS]

Y.K.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다”

2015년 3월 19일, 주님은 수많은 열방의 나라 중 한 곳으로 나를 부르셨다. 2년 전 즈음 열방으로 나아갈 마음을 주셔서 한 선교단체를 통해 6개월간의 훈련을 받은 후였다. 1년간 단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간 그곳은 그리스도인은 많이 있지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공산국가였다.

황량하고 황폐한 그 나라는 소망 없는 그때의 내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면 ‘정말 주님이 날 부르신 걸까?’라며 의심할 때도 잦았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만 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부르심이 흔들리는 나를 아시고 주님은 작정이라도하신 듯 삶 속에서 서서히 나를 다루시기 시작하셨다.

다른 지체와 함께 두 명이 팀을 이루어 나간 우리 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 처음 3개월은 그 땅에서 우리를 맞아주는 선교사님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의 생활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 주님 앞에서 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복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드러났다.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였다.

나와 너무 다른 지체와 부딪힐 때마다 나로서는 도저히 지체를 사랑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이런 곳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부르심을 저버리고도 싶었다. 주님을 사랑한다며 고백하고 따라간

걸음이었는데,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만 발견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었다. 주님도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상황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다.

그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다. 그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다. 그랬다. 그동안 내가 무너지고 넘어졌던 모든 원인은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원하

“
그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겠냐고
주님이 내게
물으셨다
”

는 대로 되지 않아서였다. 주님은 그런 나의 존재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넘기게 하시고, 주님만 전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 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충분히 알게 하셨다.

주님만 드러나는 행복한 부르심에 응답

1년의 단기선교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났

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주님은 어디로 나를 부르시는 걸까? 주님께 물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불러주셨다. 하지만 그곳에 갈 자격이 내게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부르심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다 무너진 그때에도 포기할 수 없으신 주님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질그릇 같은 나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내가 깨어져 보배 되신 주님의 생명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기쁨으로 함께 일어설 그 땅의 영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한다. 마라나타! [GNPNEWS] 이유현



할머니께 전도를 하고 인사드렸다 “천국에서 꼭 만나요”

나는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거리에서 전도를 해왔다.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 병원으로 갔다. 병원은 처음이었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며 내 마음에서 멈추지 않는 주님의 열정을 보게 되었다.

병원에서 먼저 방문한 곳은 9층 병실이었다. 친구와 함께 병실을

한 할머니를 만났다. 머리칼이 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셨다. 몸은 바삭 마르셨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분이셨다. 친구와 내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자 정말 잘 들어주셨다. 할머니는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혼 후 시어머니를 따라 절

함께 전도하던 친구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만나 주실 거예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

머니와의 나눔을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다. “천국에서 꼭 만나요.”

내게도 할머니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는 시간

병실에서 나온 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 주셨다.

“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우리는 8층으로 내려갔다. 이미 다른 친구들이 전도하고 지나간 곳이었다. 그래도 다시 병실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했다. 한 층씩 내려오며 병실마다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불타는 주님의 열정이었다.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때로는 복음을 그만 나누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이 시급하신 것 같았다. 그분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원하신다. 신부 된 나의 고백도 동일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고백을 따라간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멈출 수가 없다.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는다. [GNPNEWS]

김예림(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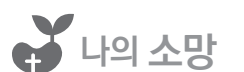
“
“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친구들이 이미 전도하고
지나간 곳 들이었으나
다시 병실마다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불타는 주님의 열정이었다.
”

한 방씩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 몸이 아픈 그분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로 시급하다는 것과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호자 없는 환자들의 병실에서

에 다니게 되셨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종교를 다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이 할머니를 간절히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들었다. 허락해 주신 때에 이 기회를 붙잡아야 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열망을 품고 주가 원하시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이 시간은 내게도, 할머니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었다. 그렇게 할



포도나무와 가지

중국 내지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한때 죄와 실패, 무능함으로 그의 영혼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선교사 매카디로부터 온 편지의 한 문장에 주목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신실하신 분에게 의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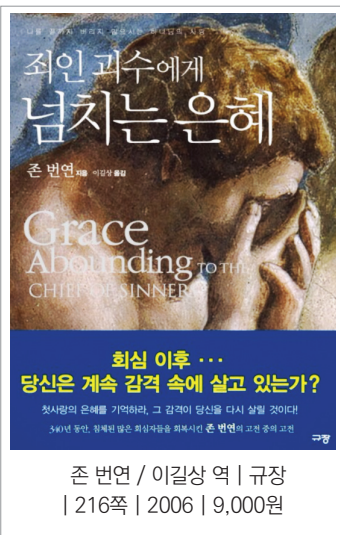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날은 달랐다. 순간 포도나무와 가지가 떠올랐다. 날마다 고민이었던 내 작은 가지로 어떻게 근원이 풍부하고 흡족한 샘물을 뽑아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불신앙임을 깨달았다. 쓸데없는 노력을 멈추기로 했다. 순간 그는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의 몸 된 지체요 살중의 살, 뼈 중의 뼈임을 깨닫는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존 번연의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나는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믿음의 삶 체험 보고서



하지만 존 번연은 그러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까지 끊임없이 나아간다. 이 책은 존 번연의 회심 과정과 이후 믿음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의심과 공격, 갈등의 과정을 꾸밈없이 그려내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결론으로 보았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렇다치고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그는 5, 6년의 시간을 ‘나는 진정 용서받은 죄인인가? 나의 회심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의 질문으로 영혼 구원에 대해 인을 치는 시간으로 보냈다.

존 번연도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이 있었다. 미친한 집안에 태어나 환경을 원망하며 죄의 쾌락을 탐닉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는 처음 교회에 나갈 때 증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그 삶을 열망하며 나아갔다. 그러나 죄의 위험과 해악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 외형적으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변화되었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채 자신의 의만 세우려고 주력하고 있었음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믿음에 대한 의문들 앞에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시험해 볼 마음이 생겼다. 어떤 때는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했고 주님이 강하게 불들어주시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의심의 바람을 맞이하는 과정을 거치며 마음의 부패함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욕망과 부패함이 나쁜 생각과 욕구로 표출되어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라앉히는 것을 보며 좌절하기도 했다. 수없이 탄식하며 간구하는 동안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문에 등을 기대고 들어왔던 자신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불신앙이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며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 없고 완전한 의가 자신에

게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총체적인 마음의 부패 자각

무엇보다 그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혐오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주저앉아 지낼 때에도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보혈과 무관하다면 차라리 더 죄책감을 일으켜주시길 구했다.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울며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양심의 고통이 누그러지면 죄책감을 지워버리고 이전보다 더 완고하고 어두워지는 지체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제때 내리는 단비 같은 말씀으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들어주셨다. 세상 모든 것을 쫓아다니 그리스도를 팔고 떠나라는 마지막 시험까지 치러낸 후 그는 전부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자신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 그리

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자리로 나아갔다. 치열한 투쟁 이후에 그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음을 고백한다. 시험의 원인은 자기에게 들어온 생각과 품었던 의심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린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체득하게 되었다. 죄가 큰 만큼 은혜도 컸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록된 여정을 보며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입을 열어 처음 은혜 받은 순간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확증되어 자신을 굳게 불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은혜!’ 내게도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내가 지은 죄들과 사탄의 유혹들보다 더 높고 위대한 은혜에 붙들려 있길 소망한다.

[GNPNEWS]

한보현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엄마와 선생님의 가르침이 다를 수 없다”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창 7:1)는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 가족을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독교대학교로 불러주셨다. 남편과 나는 교육 선교사로, 세 아이는 다음세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전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주님께 헌신하여 공동체로 생활한 지 벌써 다섯 학기가 지났다. 처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아직 낯설고 어색한 부분이 많다.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큰 아이의 원함을 들어줄 수도 없고, 편식하는 막내가 먹기 힘들어하는 반찬이라도 나오는 날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던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주님이 큰 아이에게는 선택과 목 중 요리부에 들어가게 하셔서 자신이 음식을 해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막내에게는 주방 선생님께 “더 먹어도 돼요?” “이건 조금만 주세요.”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다.

주간 기숙학교인 우리 학교에서 나는 평일에는 교육선교사로, 주말에는 아내와 엄마로 살고 있다. 학

교에서 나를 부르는 호칭은 ‘000 선생님’, 아이들은 ‘00 형제, 00 자매’이다. 아이들을 볼 때 물론 연합함도 있지만 학교에서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서 참 감사했다. 그런데 주말에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이 학교에서와 같지 않아 참 속상했다. 집에서는 못 본 척 좀 봐줘야 할지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훈계하는 게 맞는지 나조차도 정리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어쩌다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아이들에게 잔소리와 야단이 되어버려 마음이 무거웠다.

관용과 훈육 사이에서 갈등

그즈음 참 교사이신 주님은 복음교과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학기를 통해 어떻게 학생들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원형의 생명으로 불 것인지 가르쳐 주셨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복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적 죄인의 실상을 빛 가운데로 드러냈다. 평소에 잘하던 아이들의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마다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당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원형의 생명으로 바라보

며 죄에 대한 권면을 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아침 묵상 중에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 아이들의 모습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원형의 생명으로 보면 내가 복되다는 의미였다. “아멘!” 이후 학생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배웠다.

다 아는데 게으르고, 다 아는데 고집부리고, 다 아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어리니까, 커가는 과정이겠지.’라고 간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원형의 생명이었다.

어느 날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던 아이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듣고 나서 마음에 든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선생님과 똑같은 이야기만 해.”라며 섭섭해 했다.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학생으로 대했나?’ 순간 여러 생각이 오갔지만 교사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이 다를 수 없었다. 학교와 가정, 교회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방학을 맞아, 우리 반 학생들과는 매일 묵상과 일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나누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는 기상과 묵상, 과제, 주변 정리, 빨래하기 등을 믿음으로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전에는 이런 가사노동에 지치고 힘들어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다음세대 선교사로, 원형의 생명답게 살도록 섬기는 교사와 어머니의 부르심이 주님의 명령임을 안다. 한 명의 다음세대 선교사에게 주님의 꿈이 있고 열방을 살리는 부요함이 있음을 믿음으로 본다. 주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GNPNEWS]

정미혜 교육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파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7. 23 ~ 8. 4 (가나다순)

개인

강성민 강주선 김득기 김정대 박숙자 백승희 안남순 원종란 이복길 이진관 이현희 조경미 조성실 조형광 주유순 최 미 표순호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GPTI 감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높은뜻하늘교회 모리아선교교회 목자교회 부천좋은감리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시은좌교회 예순한의원 축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팔복감리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경기.다5046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